



IT 수도 서울,
Fintech를 품다

Contents

INTRODUCTION	3	6. 핀테크 중심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14
1. 핀테크 기업 핫플레이스, 서울	4	· 핀테크 스타트업 핀케치, 신시장을 개척하다.	
· 분야별 서울 소재 핀테크 기업 소개		· 대한민국 최초 콘텐츠 투자 플랫폼, 서울에서 성장하다	
2. 핀테크는 서울이 답이다	6	· 인재 육성의 요람에서 서울 핀테크의 미래를 보다	
· 서비스 접근성 -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도시		· 핀테크 서울에서 미래를 준비하다	
· 보안성 - 국제정보보호지수(GCI) 세계 4위		7. 서울투자청이 함께합니다	19
· 금융규제완화 - 금융규제혁신회의		· 서울투자청의 목표는 외국인투자자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 핀테크 테스트베드, 서울		· 투자인센티브	
3. 서울에서 핀테크의 흐름을 읽다	8	· 현금지원	
· 국내 1위 금융사 KB금융그룹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 디지털금융으로 전환을 시작하다, KB금융그룹		· 조세감면	
· 대한민국 핀테크의 아이콘 토스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복잡한 금융문제를 해결하다, 토스		· 외투기업 입주공간 지원	
· 블록체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 글로벌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	
·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다, 두나무			
· 펀더풀			
· 핀케치			
4. 핀테크도 ESG에 동참합니다	10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ESG, 두나무			
· 우리금융지주의 ESG			
5. 서울, 글로벌 핀테크 NO.1을 노리다	11		
· (디지털 금융산업 역량강화) 유망 핀테크 기업 발굴을 위한 피노베이션 챌린지			
· (디지털 금융산업 역량강화) 서울형 팁스(Tips) 첫 도입			
· (비즈니스 환경조성) 서울디지털금융 페스티벌			
· 금융클러스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추진			
· 서울시 금융산업 투자계획			
·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 서울핀테크랩			
· 해외 금융기관을 위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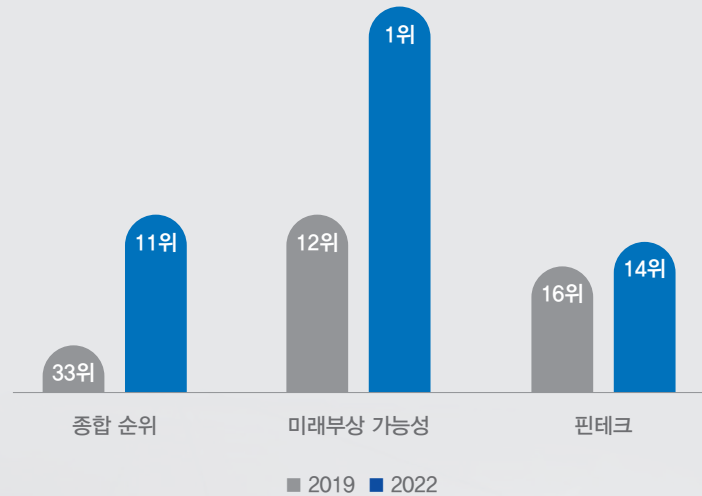


INTRODUCTION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최근 글로벌 금융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2022년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에 따르면 세계 128개 도시 중 아시아 4개 도시가 상위 15위를 차지하였다. 그중에서 서울은 2019년 33위에서 2022년 11위로 상승했다. 특히, 국제금융센터지수 5대 평가항목 중 인프라 부문 5위, 금융산업 발전 부문 4위, 인적자원 부문 5위에 선정되었다.

서울은 금융산업의 향후 성장성이 높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미래부상 가능성 부문 (The 15 Centres Likely To Become More Significant) 1위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서울이 향후 2~3년 내에 더욱 중요성이 높아질 잠재력을 갖춘 도시임을 의미하고 있다. 서울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금융기업 및 기관의 유치와 금융산업 투자자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금융산업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Finance와 Technology가 결합된 핀테크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금융도시 서울도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며 금융기관의 디지털화, ICT기업의 금융서비스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핀테크 경쟁력은 2019년에는 15위권 밖에 있었으나 2022년에는 128개 도시 중 14위로 선정되었다.



<그림 1> 서울 금융·핀테크산업 역량
출처: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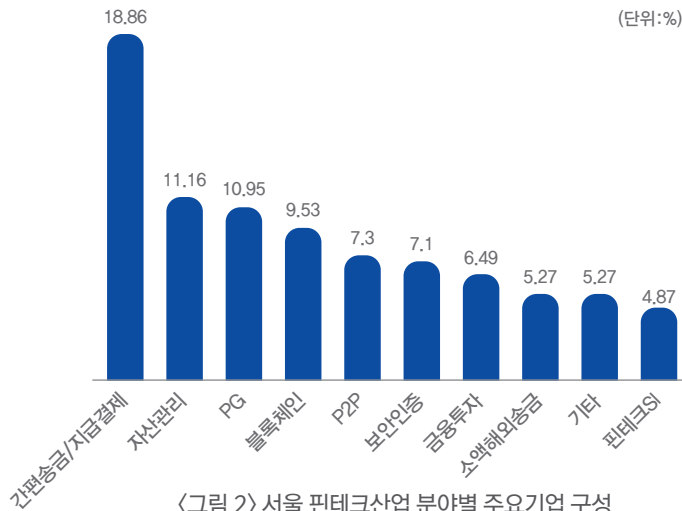
1. 핀테크 기업 핫플레이스, 서울

전국 973개의 금융회사 중 861개사인 전체의 88.5%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이 중 여의도 355개(자산운용사 집중), 강남 257개(벤처캐피탈 집중), 광화문 179개(전통은행 집중)¹⁾로 서울시 여의도는 국내 최대 금융산업이 자리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에서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구상하고 있다. 여의도에는 핀테크 산업 관련 거래소, 금융투자사, 금융보안, 송금결제사, 클라우드펀딩·P2P금융사 등이 집적되어 긴밀한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2010년 여의도는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하여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 클러스터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서울시 내 핀테크 기업 수는 약 282개로 국내 주요 핀테크 기업 수 360개 중 78%를 차지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핀테크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분야 별로는 간편송금·지급결제가 18.86%, 자산관리 11.16%, PG 10.95%, 블록체인 9.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²⁾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핀테크기업 10개사를 분야별로 정리해 보았다. 먼저 2022년에 매일경제에서 발표한 「핀테크 시장을 이끌어가는 한국의 기업들」을 기반으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거나 핀테크 서비스를 최초 도입한 기업을 기준으로 했다.



〈그림 2〉 서울 핀테크산업 분야별 주요기업 구성
출처: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

1)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2022, 서울시 경제정책실(금융투자과)
2)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기준

모우다



매출액 3억 9천만 원

자금이 필요한 의사와 다수의 투자자를 연결하는 국내 유일의 의료금융 플랫폼이다.

코나아이



매출액 1,896억 원

국내 최초로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세계 최초 개방형 모바일·IC 결제 플랫폼 '코나카드'를 출시하였다.

어니스트펀드

클라우드펀딩 부문 대표기업



매출액 78억 원

부동산, 중소기업, 신용채권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P2P금융 분야 1위의 기업. 간편투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쿠콘



매출액 591억 원

분야는 정보API제공이며, 국내 최대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으로 40여개 국가 2,500여개 기관의 금융·공공·실물 데이터를 250여개 API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웹캐시



매출액 818억 원

금융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2015년 업계 처음으로 기업 간(B2B) 핀테크 연구센터를 설립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핀테크 전략 수립 컨설팅 등을 진행하였다.

리치앤코



매출액 3,368억 원

보험 플랫폼 '굿리치'를 출시해 2019년 3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였다.

트래블월렛



매출액 8억2천만 원

아시아 최초 VISA 카드 발급 라이선스를 획득한 핀테크 기업으로 환전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비바리퍼블리카



매출액 2,290억 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Toss)' 운영사이며 2018년에 국내 핀테크 기업 최초로 기업 가치 1조를 넘어 유니콘에 등극했다.

(주)헥토파이낸셜



매출액 1,043억 원

간편현금결제, 간편송금, 가상계좌, 펌뱅킹, 전자결제(PG)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 핀테크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며 현금결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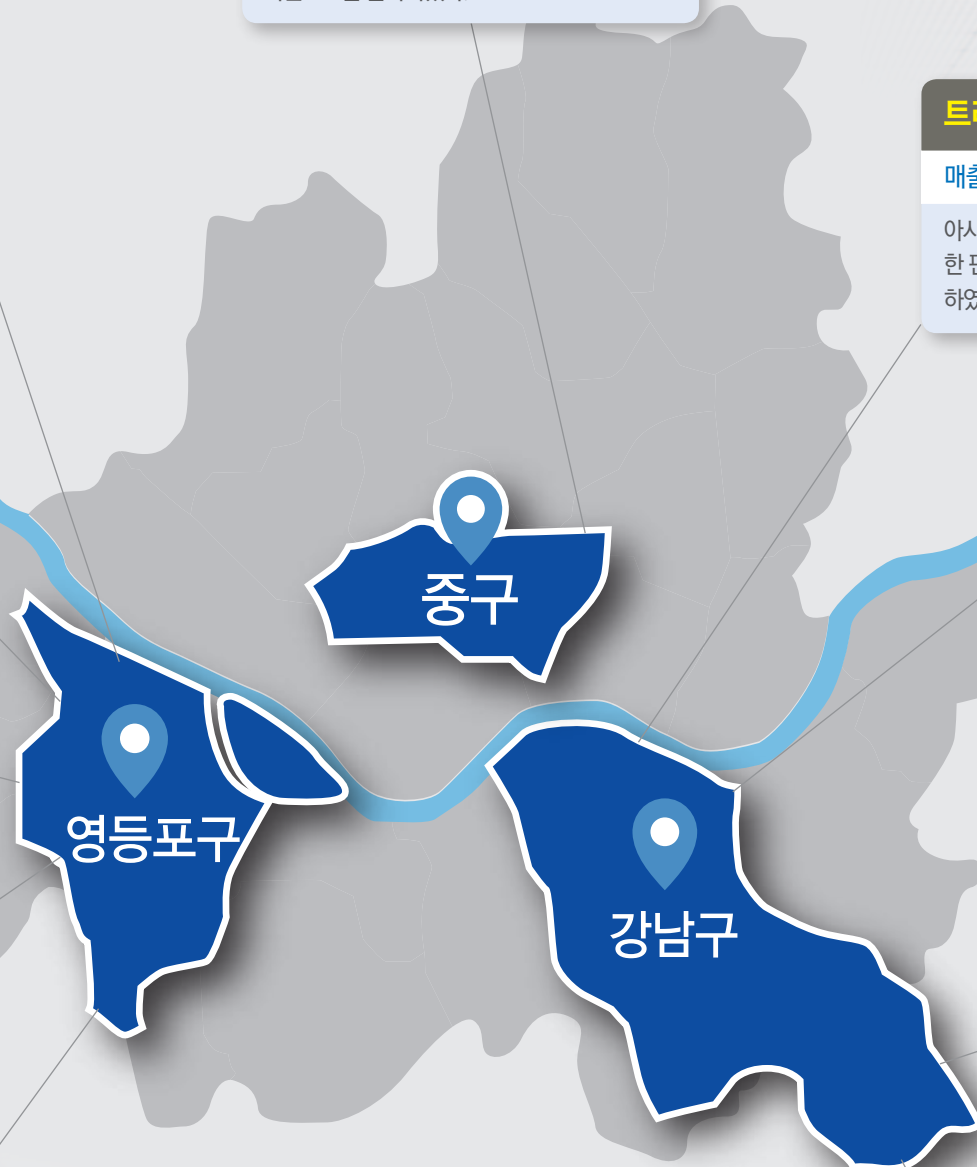
두나무



매출액 3조 6,854억 원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와 증권 정보 서비스 증권플러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국내 암호화 화폐 기업 최초로 대기업에 지정되었다.

분야별 서울 소재 핀테크 기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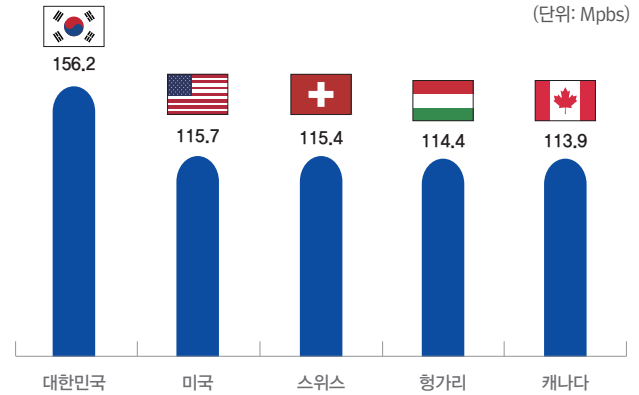
2. 핀테크는 서울이 답이다

2015년에 대표적인 기술기업인 구글(Google), 애플(Apple), 아마존(Amazon), 페이팔(Paypal) 등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IT금융연합 FIN(Financial Innovation Now)을 설립했다. FIN 전무이사인 브라이언 피터스(Brian Peters)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오고 있다. 접근성이 높고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활성화할 때가 왔다. 정부는 묶어 놓은 금융규제 정책들을 풀어야 한다.”라며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완화, 서비스 접근성, 보안성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브라이언 피터스 FIN 전무이사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①서비스 접근성 ②보안성 ③금융규제완화는 필수 요소이다. 서울은 이 세 가지 측면의 요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을까?

1) 서비스 접근성 - 세계 최고 ICT 인프라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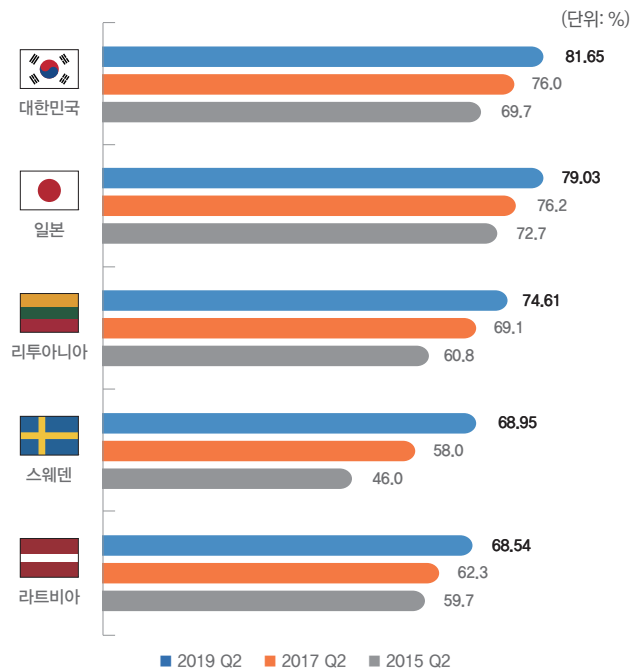
핀테크는 금융과 IT기술이 결합된 산업이다.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5G를 상용화 하였으며, 대한민국 권역별 5G 전송속도(업로드)는 서울시가 99.27Mbps³⁾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2021년 95%에서 2022년 97%로 상승⁴⁾, 와이파이(Wifi)를 포함한 모바일(Cellular) 데이터 사용량은 월 평균 24GB로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56.2Mbps로 세계 1위에 올랐다.

또한, 유선브로드밴드 보급률은 81.65%로 2위 일본(79.03%), 3위 리투아니아(74.61%), 4위 스웨덴(68.95%), 5위 라트비아(68.64%)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⁵⁾ 이처럼 서울 ICT 네트워크 인프라는 핀테크 산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림 3〉 초고속 인터넷 평균 다운로드 속도

출처: OECD oecd.org



〈그림 4〉 유선브로드밴드 보급률 비교

출처: OECD oecd.org

2) 보안성 - 국제정보보호지수(GCI) 세계 4위

핀테크 사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가 필수적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전자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금융보안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산업에서 보안은 기업의 생존, 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3)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 과기정통부

4) 2012~2022 스마트폰 사용자 & 브랜드, 갤럽

5) 「디지털 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 2020.11, OECD

대한민국은 2021년 국제정보보호지수(GCI)에서 세계 4위를 달성하였다. GCI는 국가 간 사이버 보안 역량을 비교·분석하는 국제 정보보호지수로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 총 5개의 영역이 평가 대상이다. 대한민국의 2021년 국제정보보호지수(GCI)는 194개국 세계 4위로 2019년 대비 11단계 상승하였다.

3) 금융규제완화 -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규제혁신회의⁶⁾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경제, 금융, 디지털, 법률, 언론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의 목표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기존 금융 제도를 검토하여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금융사들이 글로벌 금융사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 7월 1차 회의결과, 금산분리규제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IT플랫폼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제도를 재정립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테스트베드, 서울

한국은행 조사 결과,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지급수단 이용 시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에 맞물려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⁷⁾에서는 대한민국 남녀 중 최근 1개월 내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을 한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의 65.4%였다. 20대~40대의 경우 80% 이상이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플랫폼 서비스에서도 단연 서울에 위치한 핀테크 기업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 플랫폼 서

비스 이용자 수(MAU) 기준, 은행·뱅킹서비스 플랫폼 상위 4개사, 신용카드 플랫폼 상위 5개사, 증권·투자 플랫폼 상위 5개사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표 1〉 금융 플랫폼 월간 사용자 수('21.12 ~ '22.06)

출처: 모바일 인덱스, 아이지에이웍스

구분	내용
은행·뱅킹 서비스	① 토스(서울) 1,427만명
	② 카카오뱅크(경기) 1,315만명
	③ KB스타뱅킹(서울) 1,150만명
	④ 신한솔(서울) 945만명
	⑤ NH스마트뱅킹(서울) 846만명
송금·결제	① 삼성페이(경기) 1,552만명
	② 카카오페이(경기) 357만명
	③ PAYCO(경기) 290만명
	④ 경기지역화폐(경기) 256만명
	⑤ 인천e음(인천) 158만명
신용카드	① 페이북(서울) 720만명
	② 신한플레이(서울) 714만명
	③ 삼성카드(서울) 670만명
	④ 현대카드(서울) 626만명
	⑤ 롯데카드(서울) 443만명
증권·투자	① 키움증권영웅문S(서울) 269만명
	② KB증권 M-able(서울) 241만명
	③ 삼성증권 mPOP(서울) 232만명
	④ 나무증권(서울) 194만명
	⑤ 미래에셋증권 m.Stock(서울) 188만명

한국은행과 금융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수(MAU)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폭넓은 디지털 금융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용자 수 상위권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의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이 결과, 우수한 핀테크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가 핀테크 산업의 기술 테스트베드(Test-bed)로서 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예비창업자가 기술 및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D-테스트베드 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위험관리연구실은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 D-테스트베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소상공인 사업자 매출 예측모형 및 매출현황·신용점수 등에 대한 대시보드를 개발하였다. 또한, (주)로니에프앤은 D-테스트베드 제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 취약 시그널 및 신용 위험성을 분석하여 금융 취약 계층 선별적 지원을 위한 모형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⁸⁾

6) 보도자료, 2022.7.19, 금융산업국 은행과
 7)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2021, 한국은행
 8)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 보도자료, 2021.12.23, 금융위원회

3. 서울에서 핀테크의 흐름을 읽다

서울시에는 약 282개의 핀테크 기업이 있다. 그 중 간편송금·지급결제가 전체의 18.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 소재한 핀테크 기업은 간편송금·지급결제 분야로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산관리와 PG가 각각 11.16%, 10.95%였으며 블록체인이 9.53%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P2P 7.3%, 보안인증 7.1%이 뒤를 잇는다. 금융투자와 소액해외송금 분야도 각각 6.49%, 5.27%이다. 서울시에는 분야별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부터 핀테크 산업 현황과 주요 기업들을 소개해 서울시 핀테크 산업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분야별 서울 소재 핀테크 기업 '21년 매출액

핀테크 분야	기업명	'21년 매출액
블록체인	두나무	3조 6,854억
자산관리	비바리퍼블리카	2,390억
클라우드펀딩	데일리펀딩	17억
레그테크	코스콤	3,568억
해외소액결제	핑거	909억
보안인증	나이스평가정보	2,268억
핀테크SW	웹케시	810억
PG	KG이니시스	5,982억
로보어드바이저	빅트리	9억

*매출액(단위:원)

인터넷 은행이 등장한 초기에는 전통적 금융사 입장에서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인터넷 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눈부신 성장과 동시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혁신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했지만 사업구조는 전통적 금융사와 같은 '예대마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사이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자신들만의 플랫폼을 개발하며 인터넷 은행을 추격하고 있다. 그 선봉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KB금융그룹이다.



국내 1위 금융사 KB금융그룹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KB금융그룹은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8년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선포식을 갖고 2025년까지 2조원의 투자와 디지털금융 인재 4천명 이상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인 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은 4차산업혁명의 새 물결이며 변화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하며 각 계열사에 최적화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그중 KB스타뱅킹과 KB차차차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KB금융그룹, 디지털금융으로 전환을 시작하다

KB금융그룹은 KB이노베이션허브를 통해 우수 핀테크 스타트업과 KB금융그룹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KB이노베이션허브는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이 그 핵심이다.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화이트큐브, 아테나스랩, 글로싸인, 비엘큐 등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 및 협업하고 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핀테크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전략적투자(SI)펀드인 KB디지털플랫폼펀드를 3천억 규모로 조성했다.

〈표 3〉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명	서비스 내용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
크라프트테크놀로지스	인공지능 기반 자산운용
뱅크샐러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관리 및 생활전반관리
해빗팩토리	인슈어테크
스페이스워크	SI기반 건축설계
코인플러그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어니스트펀드	간편투자 플랫폼
보맵	인슈어테크
마크베이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의미를 분석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아스트론시큐리티	디지털 플랫폼 SI보안



대한민국 핀테크의 아이콘 토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비바리퍼블리카는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누적가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한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12월 기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다.⁹⁾

토스, 복잡한 금융문제를 해결하다

간편송금 서비스로 시작한 토스는 고객에게 빠르고 쉬우면서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이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스를 출시하였다.¹⁰⁾

2022년에는 시리즈G브릿지 5,000억원을 유치하였으며 은행·뱅킹 서비스 월별 활동 사용자수 1위(1,427만명)¹¹⁾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국내 은행권 최초로 글로벌 신용카드 데이터 보안 인증인 PCI-DSS을 획득하였다.

토스증권은 출범 1년 만에 고객 420만명과 월별 활동 사용고객 230만명을 확보했으며 대출 비교 서비스 출시 2년 9개월 만에 누적대출 규모 10조원, 이용고객 400만명을 달성하였다.



9) 보도자료, 2022.2.16., 중소벤처기업부
10) 토스피드(tossfeed) blog.toss.im
11)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2022, 모바일인덱스, 아이지아이웍스

두나무

블록체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두나무는 대한민국 1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이다. 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국내 핀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이다. 설립 10년만인 2022년에 자산총액 10조원을 넘기며 국내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대기업에 지정되었다.

두나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다

두나무의 핵심 비즈니스는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라고 할 수 있다. 업비트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중 거래대금 기준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 암호화 화폐와 더불어 수탁,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은 금융 관련 서비스, 결제, 거래소 등 종류가 다양한데 두나무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종합 거래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하며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사업모델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두나무의 금융 서비스

기업명		서비스 내용
블록체인 서비스	업비트	디지털 자산 거래소
	UBCI	디지털 자산 표준 지수 서비스
	루니버스	BaaS 플랫폼
	업비트세이프	기업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업비트 엔터프라이즈	기업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
증권 서비스	증권 플러스	사용하는 증권사 상관없이 실시간 주식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증권 서비스
	증권 플러스 (비상장)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맵플러스	투자 일임 서비스

4. 핀테크도 ESG에 동참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ESG, 두나무

핀테크 전문기업인 두나무는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인 세컨블록(2ndblock)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에 나무를 한 그루 심으면 실제 산불 피해지역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회복의 숲 X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두나무는 산림청과 함께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1만 260그루의 나무 심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산림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공감대를 만들며 세컨포레스트에서 심어진 가상 나무가 산불 피해 지역에 실제로 조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였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작은 숲 조성을 위해 국립 양평 치유의 숲에 나무를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나무는 블록체인의 철학이 되는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ESG 경영 핵심 가치에 3대 대표 원칙인 분산, 분배, 합의 규칙을 담았다. 블록체인이 지닌 탈중앙성, 보안성, 투명성, 확장성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ESG 활동을 실천하고자 한다. 정보와 교육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환경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기술과 수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가상자산의 표준과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선도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림 5〉 두나무 세컨포레스트 캠페인
출처: 두나무 인스타그램

우리금융지주의 ESG

우리금융지주는 2021년 MSCI ESG 평가에서 AA등급(선도 그룹)을 받았다. 2020년 대비 등급 상승 요인은 사회 부문 개선에 주력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우리금융지주의 ESG 등급은 2020년 BBB에서 2021년에 AA로 상승하였는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소비자 금융교육을 실시한 덕분이다. 또한 우리금융은 S&P Global에서 발표한 2022년 기업지속가능성평가(CSA)에서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유일하게 ‘인더스트리 무버(Industry Mover)’ 등급에 선정되었다. *평가상위 15% 내 기업 중 전년비 실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기업을, 업종별 1곳 선정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Good Finance for the Next)’라는 ESG 비전을 가지고 2050년까지 그룹 내부 및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 Zero 달성과 2030년까지 ESG금융 100조원 지원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성공적인 ESG경영을 위해 친환경 경영확대(E), 사회적 가치 창출(S), 투명경영 강화(G)의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수립하였다. ESG금융 실천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혁신성장 지원, 디노랩(DinnoLab),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표 5〉 우리금융지주 MSCI ESG 평가등급(2021)

구분	항목	등급
-	전체	AA
환경(E)	친환경금융	중간
사회(S)	소계	중간
	인력개발	중간
	소비자보호	중간
	정보보안	중간
	금융접근성	중간
지배구조(G)	소계	중간
	지배구조	선도
	기업형태	후발

5. 서울, 글로벌 핀테크 No.1을 노리다

서울시는 2021년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에서는 203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현재의 약 3배인 3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사를 100개사 추가 유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①금융산업 성장생태계 구축 ②디지털 금융산업 역량강화 ③비즈니스 환경 조성 ④금융도시 브랜드 강화 총 4개 분야에 15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한다.

또한 여의도를 중심으로 종로·중구의 은행권, 자산운용사와 융합을 통한 디지털 금융전환, 강남·서초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사 투자를 통한 핀테크 기업 스케일업,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VC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집적도 향상을 추진한다.

〈표 6〉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4대 분야 15대 과제

분야	15대 과제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1. 서울투자청 신설 및 해외금융기업 유치 2. 디지털 금융지원센터 신설 3.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추가 조성 4.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금융특구 추진 5. 금융산업 Think Tank 기능 강화
디지털 금융산업 역량 강화	1. 핀테크 기업 육성지원 2. 제2핀테크랩 조성 3. 디지털금융 핵심 인력 양성 4. 디지털 금융 이해력 강화 5. 금융산업 Think Tank 기능 강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	1.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브랜드 개발, 확산 2. 글로벌 핀테크 페스티벌 개최 3. 민간 네트워크 구축·활용
여의도 금융도시 브랜드 강화	1. 금융산업 대표 규제 발굴 및 개선 2. 서울시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3. 국제적 수준의 금융산업환경 조성

12) 보도자료, 2022.5.3, 서울시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디지털 금융산업 역량강화

피노베이션 챌린지

피노베이션 챌린지란 핀테크(Fintech)와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합친 단어로 핀테크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서비스, 기술을 발굴하는 챌린지이다.

서울시와 시장성 확인이 가능한 금융사가 협력하여 핀테크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은 신용카드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기술 및 서비스를 접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핀테크 산업의 핵심 분야를 주제로 선정해,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선보이는 경쟁의 장으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¹²⁾

디지털 금융산업 역량강화

서울형 팁스(Tips) 첫 도입

서울시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 민간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성장 가능성, 시장 선점 경쟁력 있는 기업에 민간투자자가 투자하면 서울시가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매칭투자 방식이다.

서울형 팁스(TIPS)는 핀테크를 포함한 신성장분야에 2022년 총 383억원의 기술개발(R&D)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민간투자자, 서울시의 예산지원은 물론 전문가 멘토링, 투자금 지원, 판로개척 등 사업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비즈니스 환경조성

서울디지털금융 페스티벌

서울시에서는 2006년부터 전문가 중심의 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 2019년부터 금융위크(3일)로 확대하여 개최하였다. 2022년에는 서울디지털금융 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산업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는 기술·아이디어·자본 등 교류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여의도 금융도시 브랜드 강화

서울시 금융산업 투자계획

서울시는 2022년부터 5년간 매년 300~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금융산업에 투입하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 중 25~55%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된다.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자원의 산업육성 서비스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인력양성, 비즈니스 기회·기업 홍보·해외투자유치 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에 투입된다. 그 외 예산 역시 국제금융산업의 활성화, 해외금융기업의 유치 등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해외 투자자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금융사의 유치, 국제금융 오피스 조성에 투자된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기회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사용될 것이다.¹³⁾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금융클러스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추진

서울시는 여의도 중심의 금융산업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간인 서울 핀테크랩, 금융·핀테크 네트워킹 지원 공간인 서울국제금융오피스, 핀테크 전문교육(학위·비학위) 기관인 여의도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 핀테크 실무교육을 위한 서울핀테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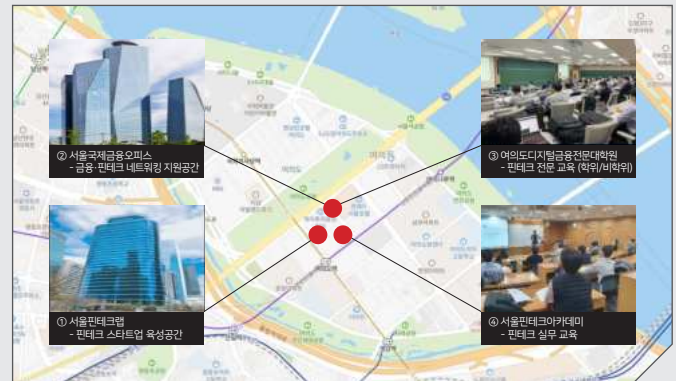
서울핀테크랩

서울핀테크랩은 서울시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핀테크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및 해외 창업기업을 모집하여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국내 핀테크 기업 72개사, 해외 핀테크 기업 9개사 등 총 81개사가 입주해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전문기관과 금융사가 함께 입주하여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다.¹⁴⁾

〈표 7〉 서울시 금융산업 투자계획

(단위: 억원)

과제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서울투자청 신설, 해외금융기업 전략적 유치	127	215	227	289	310
디지털 금융지원센터 신설	5	167.5	167.5	-	-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추가 조성	54.2	44.4	44.4	44.4	44.4
핀테크 기업 육성지원	78	78	80	80	82
제2핀테크랩 조성	6	16	16	17	17
디지털 금융핵심인력양성	28	28	28	28	28
글로벌 핀테크 페스티벌 개최	2.9	5	10	10	10
민간 네트워크 구축·활용	0.5	1	0.5	0.5	0.5
금융산업 대표 규제 발굴, 개선	0.45	1	1	1	1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2.5	5	5	5	5



〈그림 6〉 서울시가 여의도에 운영중인 핀테크 관련 기관

출처: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2022), 서울시 경제정책실(금융투자과)



〈그림 7〉 서울핀테크랩

출처: 서울핀테크랩 홈페이지

13)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2022, 서울시 경제정책실(금융투자과)

14) 서울핀테크랩 seoulfintechlab.kr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서울국제금융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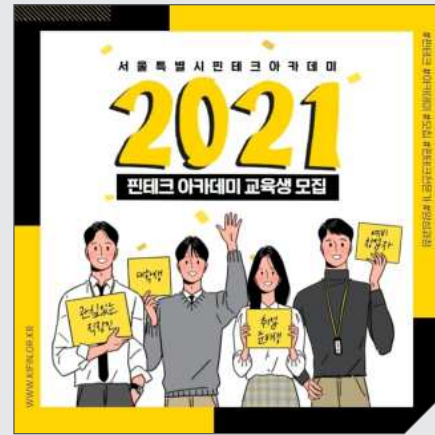
서울국제금융오피스는 국내 금융산업에 신규·재진입하는 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입주기관 자문, 세미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최, 전문가 기고문 송출 등 금융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¹⁵⁾ 주요 지원혜택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금융시장 탐색부터 운영사무소 초기 기업 진단 제공 및 금융전문가 멘토링 지원, 세미나·네트워킹, 전문가 기고문 배포, 해외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진입 시 겪는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정착까지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그림 8〉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출처: 서울국제금융오피스 seoulfnhub.kr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서울핀테크아카데미

서울핀테크 아카데미는 IT·소프트웨어 및 금융업계 경험 인력을 대상으로 핀테크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을 운영한다. 각 금융업권별 연수원 및 금융 현업 관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핀테크 실무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⁶⁾



〈그림 9〉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출처: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여의도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여의도 디지털금융 MBA는 금융·IT 융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으로 금융위원회와 서울시, KAIST 경영대학이 공동 개설하고 KAIST 경영대학이 운영을 맡는다. 디지털금융 MBA과정에 입학한 핀테크 예비 창업자들은 KAIST 창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창업 공간, 멘토링, 법률 및 회계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¹⁷⁾

15) 서울국제금융오피스 seoulfnhub.kr
16)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77호
17)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business.kaist.ac.kr

6. 핀테크 중심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핀테크 스타트업 핀케치, 신시장을 개척하다



Q: 핀케치는 어떤 기업인가요?

핀케치는 설립 3년차 스타트업으로 펀드매니저, 트레이더, 준법감시인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자산 주문체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연 매출 10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Q: 창업 배경 및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최근 주식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산운용시장과 기관투자자의 영역이 확대된 것이 핀케치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과거 20년간 타 서비스 회사의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트레이딩이 이루어졌으나 시장의 성장으로 프로그램 매매, 주문 건수 확대, 니즈의 다양화가 발생하여 기존 프로그램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 B2B 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제공 사업에 기회를 포착하고 스타트업 최초로 시장 개척자로서 핀케치가 등장하며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Q: 수상 및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핀케치는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기술보증기금의 기보 벤처캠프를 수료했습니다. 또한, 엔젤투자 매칭펀드에 선정되며 초기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시 주관 서울핀테크랩의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여의도에 공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Q: 기업 성장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무엇인가요?

서울핀테크랩 입주가 기업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공간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경영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및 멘토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 인프라가 우수한 서울 여의도에 자리 잡아 B2B 영업 및 사업 확장이 가능할 수 있었고 나아가 급변하는 핀테크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Q: 핀테크 산업의 최근 트렌드와 핀케치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핀테크 산업의 최신 트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핀케치는 이를 인지하고 기존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기관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분야 전문기업과 협업을 통해 신사업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콘텐츠 투자 플랫폼, 서울에서 성장하다



윤성욱 대표이사

- '19~현재, 펀더풀 대표이사
- '16~'19, 와디즈 투자사업실 이사
- '11~'16, IBK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
- '10~'11, 엠벤처투자 CT본부
- '07~'10, 한화 콘텐츠사업팀

Q: 펀더풀은 어떤 기업인가요?

펀더풀은 2019년 5월 설립한 업력 3년차 스타트업으로 국내 드라마, 영화, 웹툰·애니, 전시, 트래블 등 6개 분야 콘텐츠를 대상으로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창업 배경 및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창업 전 영화 '올드보이' 제작 투자사 쇼이스트 한국영화팀, IBK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재직하면서 콘텐츠 투자는 전 프로세스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비효율, 고비용 조달 구조이고, 무형자산인 콘텐츠는 기존 신용평가 모형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성장하는 K-콘텐츠 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대형투자자가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일반인도 온라인을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콘텐츠 투자를 자본시장으로 확대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펀더풀의 성장전략 및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펀더풀은 기업이 아닌 프로젝트성 사업을 특정 IP에 담아 증권상품으로 만들어 투자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가장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콘텐츠 대상 투자상품 중개에 있어 펀더풀이 시장 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개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창적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받아 다올 인베스트먼트, KC벤처스로부터 10억 원의 시드머니를 확보하였고 Series-A 투자유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펀더풀은 이러한 차별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출시 1년 5개월 만에 누적 청약금액 100억 원을 달성하고 채권형 프로젝트 부문에서 점유율 75.2%로 업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Q: 펀더풀이 느낀 서울 입지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펀더풀 조직구성 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개발 직군은 기업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개발자 채용을 위해서는 우수인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 정부기관 및 관련 사업자들과의 비즈니스적 만남이 빈번하게 수반되어 이러한 금융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기업 운영 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핀테크 기업의 서울 입지가 다방면으로 필수적인 상황에서 펀더풀은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지원받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Q: 현재 트렌드는 무엇이고 펀더풀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금융산업은 개인금융 영역에서 발전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상자산 및 증권형 토큰 등에 대한 언급이 빈번해짐에 따라 기업금융 영역 내 핀테크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펀더풀은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콘텐츠 사업자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투자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에 초점을 두고 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채널확보 및 제휴전략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인재 육성의 요람에서 서울 핀테크의 미래를 보다



홍기훈 교수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홍익대학교 메타버스금융랩 소장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 자문교수단
자문위원
- 금융위원회 테크위원회 자문위원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을 움직이는 인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홍기훈¹⁸⁾ 교수와 학생을 만났다.

Q: 홍익대학교의 핀테크 분야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는 ICT 기술을 활용한 Finance Service에 방점을 두고 핀테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금융랩에서는 문화예술 작가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핀테크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Q: 홍익대학교의 핀테크 교육 방향은 무엇인가요?

핀테크도 결국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금융을 기반으로 합니다. 금융에 기술이나 비즈니스 트렌드 등이 접목되어 파생되는데 트렌디한 것은 기업이 시장에서 해야 할 일이고, 학교는 일시적인 트렌드 보다는 학생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기업과 산업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홍익대학교 핀테크 인력의 진로는 주로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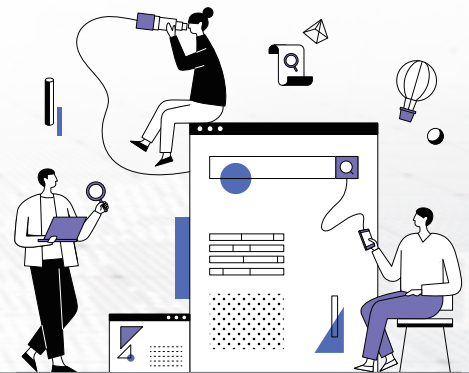
주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으로 진출도 많습니다. 스타트업에는 실무인재가 절실하고 우리학교에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입니다. 실무 인력의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핀테크 투자처로서 대한민국과 서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매력 포인트는 핀테크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은 정부 지원금이나 지원 사업의 참여기회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사용자 편의성, 시인성 등을 고려해서 정말 잘 만듭니다. 서비스 자체의 창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기업에서 안 하는 서비스를 기업들이 계속 찾아서 발굴합니다.

Q: 핀테크 산업에서 서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서울은 핀테크 분야 네트워크, 인프라, 정부지원, 인재육성 및 교육 등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핀테크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자원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핀테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18)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를 마쳤다. 2010년대 초반 국제송금결제기구(SWIFT)의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미국 중앙은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에서 발표하며 핀테크 연구를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핀테크 자문교수단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테크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핀테크 서울에서 미래를 준비하다



황지웅 학생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 홍기훈 교수 연구실 연구원

Q: 핀테크 산업에 어떤 기회를 보았나요?

수업 중에 공부했던 다양한 핀테크 사업 사례를 보면서 많은 서비스를 창출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 후 학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고 동시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창업 아이디어는 무엇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금융인프라 서비스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생각해서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대학에서 핀테크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장점은 무엇인가요?

학교에 있으면서 공부와 창업을 준비하니까 교수님의 멘토링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내 금융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단편적인 투자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최신 논문, 보고서 등을 공부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취업진로지원 관련 부서에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기가 쉽습니다.

Q: 서울에서 핀테크 창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서울에는 많은 금융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 창업, 핀테크 관련 세미나들이 대형 금융사를 주관으로 열립니다. 세미나들은 금융, 제무, 경제 등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금융사에서 월 1회 개최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성공 및 실패 사례도 학습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Q: 핀테크 산업에서 서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서울에 금융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투자자, 교수님, 멘토님 등 인적 네트워크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서울투자청이 함께 합니다

서울투자청의 목표는 외국인투자자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울투자청은 서울시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기관이다. 외국인투자 관련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별 전문기관,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앙정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투자자의 니즈에 최적화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¹⁹⁾

투자 인센티브

현금지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사업을 위한 공장(또는 사업장)의 신축 또는 증설을 대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임대료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신주취득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공장 또는 사업장, R&D 시설의 신·증설을 조건으로 한다.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설을 하거나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인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IT융합, 녹색산업, 바이오, 디지털 콘텐츠, 패션·디자인, 관광·컨벤션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MOU 체결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직접 유치한 기업이 그 대상이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한다.

외투기업 입주공간 지원

서울시에서는 운영 중인 센터에 대해 외투기업을 위한 임대공간을 제공한다.

〈표 8〉 외투기업 입주공간 지원

공간명	입주지원 산업군
첨단산업센터	· 방송, 영화 등 디지털 미디어 업종 · 게임,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 업종 · 스마트 미디어, 자율주행 DMC 전략산업 업종 · IT, 디자인 등 디지털산업과 관련 시너지 효과가 높은 업종
산학협력 연구센터	· 방송, 영화 등 디지털미디어 업종 · 게임,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 업종 · 스마트 미디어, 자율주행 DMC 전략산업 업종 · IT, 디자인 등 디지털산업과 관련 시너지 효과가 높은 업종 · 서울 소재 대학연구소,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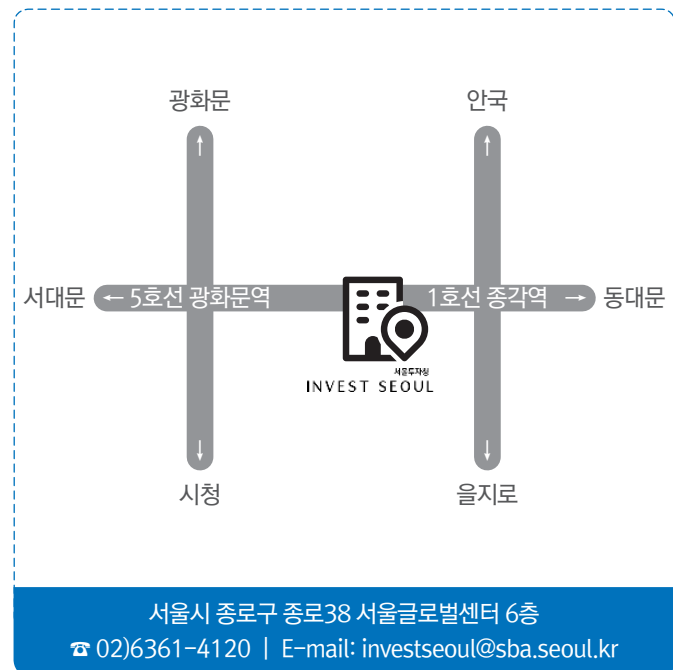
글로벌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

서울시 투자청에서는 서울에 소재한 투자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기획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서울 진출 지원을 위해 투자 지원, 경영 지원, 정착 지원으로 구성된 올인원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다.

〈표 9〉 올인원 패키지

구분	상세내용
투자지원	· 법인설립 및 증액투자에 따른登記 법무 지원 - 투자 규모에 따라 법무 비용 실비 지원
경영지원	· 노무/구인, 법률, 세무/회계, 지적권 관련 컨설팅 지원 - FDI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정착지원	· 사무실 임차, 리로케이션 서비스 지원 - FDI 10억원 이상 투자 기업 대상 최대 5백만원

찾아오시는 길



19) 서울투자청 investseoul.org

2022 서울 산업 보고서

IT 수도 서울, Fintech를 품다



invest
Seoul